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Effects of Perceived Stigma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 with Disabilities on Adaptation of Campus Life :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정원철*, 김진영**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Weon-Cheol Jeong(jwc@silla.ac.kr)*, Jin-Young Kim(mama1125@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을 방해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 경남 일부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108명(남학생 61명, 여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성별과 학년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고,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특히 우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지지 또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접근들 못지않게 장애대학생을 둘러싼 사회적지지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장애대학생 | 낙인 | 우울 | 대학생활적응 | 사회적지지 | 조절효과 |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ed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depression of student with disabilities(SWD) and their adjustment of campus life. For the purpose of the reas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8 SWD from questionnaires in Busan city and Kyungnam provi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t was revealed that the factors, grade and gender,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adjusting campus life of SWD. Perceived stigma and depression of SWD had positive impact on the adjustment of campus life. Social support of SWD also had positive impact on the adjustment of campus lif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social support of SWD had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depression of SWD and their adjustment of campus life. This study verified tha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adjusting level in college life of SWD, it was as important to make social support to be delivered at SWD as decreasing the perceived stigma and depression of SWD. Finally, the authors suggested some direction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his study question and remark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 keyword : | Student with Disabilities | Stigma | Depression | Adjustment of Campus Life | Social Support | Moderating Effects |

접수일자 : 2015년 04월 07일

수정일자 : 2015년 05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5월 18일

교신저자 : 정원철, e-mail : jwc@silla.ac.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주기에 의하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transition)되는 과도기 시기로서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업을 향상시킬 과제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개인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는 중·고교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학생활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를 테면 학교 적응,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정서문제, 이성 및 성 문제[10] 등이 그러하다.

근자에 들어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의 연구[1][5][19]에 의하면 장애대학생의 경우 비장애대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는 실정이다[2][15][27].

낙인(stigma)은 일반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문제이다. 낙인을 지각하는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주류에 진입하는데 대한 두려움, 자존감의 손상, 사회적 고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33][35][39][40].

Jack(2009)에 따르면 장애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낙인은 인종, 연령,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42]는 일반인들이 갖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장애대학생이 내면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병리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Jackson과 동료들(2013)의 질적연구에서도 장애대학생의 낙인지각은 그들의 대학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장애대학생의 낙인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우울로 알려져 있다[25]. 장애대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분석한 [1][5]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대학생의 경

우 일반대학생에 비해 특히 우울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알려진바 대로 우울은 개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감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김자경 외(2007)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높은 장애대학생일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장애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대학생 중에도 비장애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완수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장애대학생의 대학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에 관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불리한 역경에 처한 개인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사회적지지는 인간이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전을 언급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31]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역경에 처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밝혀져 왔으나 정작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에게 주어진 사회적지지가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지각된 낙인감 및 우울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지니는가?

II. 이론적 배경

대학생활적응(adjustment to college)이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학업 등의 과업과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43].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였다. 그는 학업적 적응이란 대학에서의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사회적 적응은 대학 내 타인과의 관계,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정서적 적응은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신체적 문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바 있다.

장애인의 대학 진학은 장애인이 직업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주류사회(mainstream)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며, 직업적 전문성을 연마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대학생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딛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입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입학한 장애대학생들은 정부의 지원 및 편의제공 부족 등으로 인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학업중단이 3배 이상 높으며[21], 장애대학생은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학사경고, 휴학, 자퇴, 학업부진, 학교불만족, 중도탈락 등의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들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4][6][19][30][34].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 제1항에 의하면 각 대학의 장애 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곳도 상당 부분 있으며[20],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객관적인 보고 또한 아직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통합과 복지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소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에 주목해 보고

자 한다.

장애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낙인(stigma)이란 장애를 가진 대학생은 비장애학생과 차이가 나며, 학업 및 문제해결 능력에서 비장애학생과 구별되어진다는 신념을 일컫는다[37].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학업능력에 대한 폄하, 혜택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학업수행, 학업중도포기 가능성의 높음, 의존적인 관계 등을 포함한다. 낙인이론적 관점 [44]에 토대할 때 낙인을 부여하는 타인들은 그 개인에게 낙인과 일치하는 반응을 기대하며, 낙인을 지각하는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낙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정립하고 궁극에는 주변의 기대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며 점차 그 역할을 내재화하여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통합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를 대학생의 낙인문제에 연결해 보면, 낙인을 지각한 대학생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포기하고 자기불신, 학업수행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 면에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37]. 아울러 장애에 따른 혜택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자신의 장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고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장애에 따른 낙인지각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 중의 하나인 우울(depression)은 슬픈 감정을 비롯한 좌절감, 침울감, 상실감, 절망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 등 고통스런 정서 상태로 증상이 심각할 경우 자살에 이르기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의 수준이 높을 경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열등감이나 슬픔에 휩싸여 일상생활에서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5],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45][46]. 우울 출현율 역시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이 더 높게 확인되고 있으며[32], 장애대학생 역시 비장애대학생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고, 우울과 대학생활은 부적(-)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5].

시각장애대학생의 모래치료와 우울을 연구한 박목화(2013)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하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반복된 좌절 경험으로 인한

무기력감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대학생의 편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8] 역시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우울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의 연구에서도 특성불안으로 우울감이 대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변인 간의 연관성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거나 우울과 불안을 특성불안으로 함께 묶어 처리함으로써 우울감의 개별변인이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은 이들의 대학생활을 방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대학생 중에도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장애대학생이 지각된 낙인과 우울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증재할 심리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 역시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역경 속의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변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알려진 사회적지지라는 보호요인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빈곤, 폭력경험, 사회적 배제, 결혼가정 자녀와 같이 소위 ‘취약계층’에서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의 출현빈도가 낮고, 사회적응 수준 역시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9][12][16][25]를 고려해 볼 때 장애라는 심신의 손상이나 무능력을 지닌 장애대학생 일지라도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우울, 사회적 낙인과 같이 장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완화되고 이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의 연구[18][23]에서 단편적이거나 사회적지지가 장애대학생의 대학적응 및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지지 요소가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변인 간의 단선적인 인과관계 규명에 머문다는 점

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로 [41]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Nolten은 대학생의 주요 사회적지원으로서 교수, 부모, 또래를 제안한바 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부모는 관계적인 면에서 학생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장애대학생에게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을 지원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이다. 교수는 학생의 중요한 지적정보 제공자이며, 수업과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원이다. 또래는 장애대학생과 학교생활을 직접적으로 함께 수행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 부모, 또래 지지를 사회적지지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교수, 부모, 또래학생으로 구성된 사회적지지가 양 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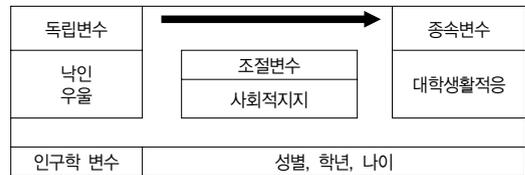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장애대학생이다. 조사를 위해 먼저 학생처에 협조공문 발송 후 본 조사에 동의하는 대학을 선정한 후 장애학생 동아리 대표의 협조로 본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장애학생이 직접 설문지에 응하도록 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에서 불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30개를 제외한 108개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대학생활적응

장애대학생을 위한 대학생활적응도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Baker 등(1984)의 대학생활적응질문지(SACQ)를 근거로 이경림 등(2007)이 수정 보완한 ‘대학생활적응척도’(신뢰도 .918)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를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이다.

2) 독립변수

(1) 낙인

장애대학생의 낙인 측정에는 Vogel 등(2006)의 ‘자기 낙인척도’를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안 수정한 척도(내적합치도 .83)가 활용되었다. 총 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0이다.

(2) 우울

우울의 평가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Zung(1965)의 척도를 토대로 양재곤(1982)이 번안한 것으로 총 17문항으로 ‘아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6이다.

3) 조절변수 : 사회적지지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Nolten(1994)이 개발한 ‘학생사회적지지(Student Social Support Scale)’ 척도를 김지혜(1998)가 번안한 것을 [21]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교수 또래 지지로 구성된 총 2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인구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장애대학생의 성별[13][18]과 학년[9][8][29], 나이[9]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성별은 남여로, 학년은 1-4학년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0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과 독립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자 기술통계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피어슨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 56.5%(61명), 연령은 21-23세가 39.8%(43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33.3%(36명)이었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32.4%(35명)로 가장 많았고, 장애등급은 1-3등급이 73.1%(79명)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속성	빈도	%	변수	속성	빈도	%
성별	남	61	56.5	장애유형	지체	35	32.4
	여	47	43.5		언어	19	17.6
연령	18-20세	41	38.0		뇌병변	16	14.8
	21-23세	43	39.8		시각	14	13.0
	24세이상	24	22.2		청각	13	12.0
학년	1학년	36	33.3		자폐성	5	4.6
	2학년	30	27.8		신장	4	3.7
	3학년	20	18.5		정신	1	.9
	4학년	22	20.4		호흡기	1	.9
중복장애	예	16	14.8		장애등급	1-3등급	79
	아니오	92	85.2	4-6등급		29	26.9

2. 관련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독립, 조절,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우선, 독립변수인 낙인은 평균 2.50(±.75)로 나타나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낙인을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낙인의 정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울은 평균 2.30(±.4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절 변수인 사회적지지는 평균 3.40(±.62)로 나타나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3.14(±.48)로 나타나 보통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관련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M	SD
독립 변수	낙인	108	1	4.75	2.50	.75
	우울	108	1.47	3.71	2.30	.41
조절 변수	사회적지지	108	1.71	4.90	3.40	.62
종속 변수	대학생활적응	108	2.13	4.13	3.14	.48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최소 .147에서 최대 .774로 나타나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 기준인 .8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낙인과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변수의 상관분석

	낙인	우울	사회적지지
낙인	1		
우울	.302**	1	
사회적지지	-.147	-.578***	1
대학생활적응	-.383***	-.774***	.589***

***p<.001 **p<.01 *p<.05

4.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아래는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표 4].

1단계 성별과 학년을 투입한 결과 투입된 변수들은 대학생활적응을 17.1%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회귀식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0.867, p<.001). 1단계에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성별(β=-.291, p<.01)과 학년(β=.294, p<.01)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자 장애대학생과 저학년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적응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의 투입변수들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67.5%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50.4% 높아져,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2단계에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β=-.126, p<.05), 낙인(β=-.204, p<.01), 우울(β=-.647, p<.001)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년(β=.204, p<.01) 변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각된 낙인과 우울의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에게 낙인감을 줄여주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노력은 이들의 학교적응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3단계는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투입변수들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70.3%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2.8%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이다. 3단계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8.237, p<.001). 조절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β=-.146, p<.05), 낙인(β=-.204, p<.01), 우울(β=-.527, p<.001)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년(β=.176, p<.01)과 사회적지지(β=.208, p<.01)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상황에서 낙인과 우울은 이전 단계에 비해 영향력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낙인과 우울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적지지의 조절변수가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로 인한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관계망 확장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4단계는 조절회귀모형의 한계인 다중공선성과 조절변수의 회귀계수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개별항목 값을 평균치를 중심으로 중심화(centering)시킨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중심화란 각 변수에서 해당변수의 평균을 빼서 편차점수를 구하는 것으로서 독립변수와 상호작용변수 간에 나타나는 높은 상관관계를 배제시키는 방법이다. 즉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할 때(독립변수 - 독립변수의 평균)×(조절변수 - 조절변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절변수 검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단계는 우선 3단계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투입된 회귀모형이다. 투입된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보면 공차한계가 0.1이상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0.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투입되자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72.8%로 나타나, 이전 단계에 비해 2.5%($p<.001$)의 설명력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4단계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beta=-.541, p<.001$), 사회적지지($\beta=.251, p<.001$), 낙인($\beta=-.188, p<.01$), 학년($\beta=.157, p<.01$), 성별($\beta=-.121, p<.05$)순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 항에서는 낙인 상호작용항($\beta=.110, p<.05$), 우울 상호작용항($\beta=-.140, p<.05$)이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낙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우울의 상호작용 항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로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워도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사회적지지와 낙인 상호작용항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지각된 낙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사회적지지가 주어진다면 낙인과 우울을 감소시켜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로써 장애대학생에게 사회적지지의 제공은 이들의 학교적응을 제고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 4.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상수		28.665***		28.366***		13.125***		13.113***
성별	-.291	-3.271**	-.126	-2.180*	-.146	-2.614*	-.121	-2.188*
학년	.294	3.312**	.204	3.491**	.176	3.105**	.157	2.831**
낙인(A)			-.204	-3.387**	-.204	-3.520**	-.188	-3.329**
우울(B)			-.647	-10.428***	-.527	-7.409***	-.541	-7.861***
사회적지지(C)					.208	3.080**	.251	3.745***
A × C							.110	1.986*
B × C							-.140	-2.604*
R ²	.171		.675		.703		.728	
R ² 변화량	.156		.663		.688		.709	
F	10.867***		53.516***		48.237***		38.306***	

*** $p<.001$ ** $p<.01$ * $p<.05$

아래의 [그림 2]는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입증된 지각된 낙인과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조절변수를 두 개 수준으로 나누었다. 즉 조절변수가 평균보다 큰 경우를 높은 집단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보면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낙인과 우울이 높은 상황에서도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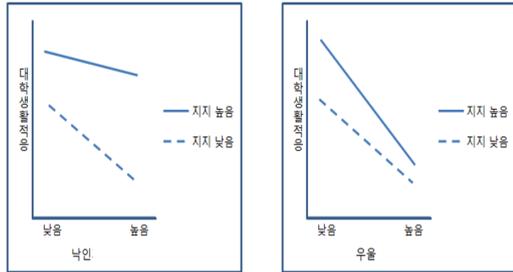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지각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장애대학생들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조절효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년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이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9][13]의 연구와 일치하며, 저학년 일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8][14][29]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은 이들의 학교적응을 방해한다는 Jackson(2013)과 Jack(2009)의 주장과 일치한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우울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대학생의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사회적지지 또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장애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도 증가한다고 분석한 [7][9][19][18][11]연구와 일치한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지각된 낙인 및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높다 하더라도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으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지지는 외적자원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보호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재한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적지지가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에 따른 대학생의 학교부적응을 보호한다는 [19]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사회적응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가 낮게 파악된 것을 고려할 때 장애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입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학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이 학기 초에 투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단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또한 활발하지 않았다. 장애대학생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학진학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장애대학생의 학교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이들 변인 간의 인과성을 밝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연구결과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역시 힘들어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낙인 및 우울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임상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요인은 대학생활적응의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낮은 학생을 스크린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지지가 낮은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관개망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사프로그램 안내 등의 부모교육, 교수지지 체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생 멘토제도, 개별상담 프로그램, 또래 멘토제도, 학습도우미, 동아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장애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대학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 차원에서의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에 사회적지지가 매우 요긴한 개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지역 소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권현용, 김현미,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동서정신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43-56, 2004.
 [2] 김남순,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36권, 제1호, pp.81-100, 2001.
 [3] 김동일, 정소라, 고희정, 김주선, 김수연,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지체·중복·건강 장애교육학회지, 제56권, 제1호, pp.65-95, 2013.
 [4]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제37권, 제4호, pp.335-337, 2003.
 [5]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제8권, 제4호, pp.461-476, 2007.
 [6] 김진호,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분석” 인문과 논총, 제13호, pp.119-136, 2004.
 [7] 김현주,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 류진혜, 이대형, “2004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제22호, pp.177-222, 2004.
 [9] 문주영, 사회적 지지가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0] 서울대 학생생활 연구소, 200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2003.
 [11] 서지은,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2] 서희채,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석말숙, 강동욱,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4호, pp.171-194, 2005.
 [14] 심향숙, 타지역 출신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5] 양재신,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월, pp.40-44, 2001.
- [16] 옥경희,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학생생활연구, 제8권, pp.21-39, 2001.
- [17] 유미혜,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낙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이재경, 박재국,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 제9권, 제1호, pp.289-308, 2007.
- [19] 이웅, 이주희, 이한나,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 제10권, 제3호, pp.245-268, 2011.
- [20] 이재환, 성혁제,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197-210, 2015.
- [21] 이재환, 이수경,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183-198, 2012.
- [22] 이정애, 최용용,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진로포부 비교”,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2호, pp.55-76, 2010.
- [23] 이현희,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4] 전진순,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5] 최승혜, 이해영, “대학생의 불안, 취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619-627, 2014.
- [26] 최인실,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7] 한국재활복지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교수 학습지원 협력체제 구축방안”, 제3회 통합교육 환경 개선 세미나, 2005.
- [28]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 [29] I. I. Barkovskaia,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adapt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 *Russian Education and Society*, Vol.43, No.4, pp.86-91, 2001.
- [30] H. A. Belch, “Retention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Vol.6, No.1, pp.3-22, 2004.
- [31] S. Cohen and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IS, pp.99-125, 1983.
- [32] M. C. Coleman and J. Webber, *Emotional and Behavioral*, (2004), 서울:시그마프레스, 2002.
- [33] J. Crocker, B. Major, and C. Steele, “Social stigma,”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No.4, pp.504-553, 1998.
- [34] W. S. Gilbert, “Bridging the gap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A successful program that promotes academic success for Hopi and Navajo student,” Paper presented at the Retention in Education for Today’s American Indian Nations, Tucson, AZ, 1996.
- [35] E. Goffman, *Stigma: Notes on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 [36] E. Jackson, A. Tayloy Eileen Anderson-Fye, and J. Floersch, “College Student Disclosure of Non-Apparent Disabilities to Receive Classroom Accommodations,”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Vol.26, No.1, pp.35-51, 2013.
- [37] Jack, Trammell, “Postsecondary Students and Disability Stigma : Development of the

Postsecondary Student Survey of Disability-Related Stigma,"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Vol.22, No.2, pp.106-116, 2009.

[38] S. J. Janiga and V. Costenbader,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post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35, No.5, pp.462-468, p.479, 2002.

[39] B. Link, E. Struening, S. Neese-Todd, S. Asmussen, and J. Phelan, "Stigma as a barrier to recovery: The consequence of stigma for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ic Services*, Vol.52, pp.1621-1626, 2001.

[40] B. G. Link, L. H. Yang, J. C. Phelan, and P. Y. Collins, "Measuring mental illness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Vol.30, pp.511-541, 2004.

[41] P. W. Nolté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4.

[42] R. T. Pulice, L. L. McCormick, and M. Dewees, "A qualit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e effects of system change on consumers, families, and providers," *Psychiatric Services*, Vol.46, pp.575-579, 1995.

[43] B. D. Smedley, H. F. Myers, and S. P. Harrell, "Minority-status stresses and the college adjustment of ethnic minority freshm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64, pp.434-452, 1993.

[44] T. J. Scheff, *Being mentally ill: A sociology theory*, Chicago: Aldine de Gruyter, 1966.

[45] W. R. Shadish, D. Hickman, and M. C. Arrick, "Psychological problems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 : Emotional distress as a function of tim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9, p.297, 1981.

[46] R. J. Turner and P. D. McLean, "Physical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34, No.4, pp.225-242, 1989.

저 자 소 개

정 원 철(Weon-Cheol Jeong)

정회원



- 2002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방법론 철학박사
- 현재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회장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상담, 교류분석상담, 정신건강

김 진 영(Jin-Young Kim)

정회원



- 현재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현재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 교류분석상담